제320회국회
(정기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1월15일(금)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
   가. 2014년도 국제경기대회 관련 예산안
   나. 건의사항 등 기타 내용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 5
   가. 2014년도 국제경기대회 관련 예산안
   나. 건의사항 등 기타 내용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재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국회 제4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기관장이 있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김영수 위원장,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정의화 위원장과 강운태 위원장 그리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의 박준영 위원장은 해외출장이나 다른 일정 등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의 기관장석에는 해당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출석하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여야 간사 간에 이번 특위를 개최하는 문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기관을 오시도록 해서 여러 가지 국제대회 개최 준비 작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 일 없이 가다가 갑자기 13일 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이 다른 행사를 이유로 불참하겠다, 대행으로 오시겠다라는 통보가 있었고, F1대회도 마찬가지로 사무총장께서 오시겠다고 통보가 왔고, 어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 두 분께서 해외출장 그리고 국내 행사 관계로 못 오시겠다고 오후에 팩스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시간도 없지만 많은 조직위원회가 다 같이 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당사자인 조직위원장님들이 참석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지만 더더욱 유감인 것은 회의 개최 하루 전에 그리고 이틀 전에 팩스를 넣고 못 오시겠다고 대행한다는 거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또 말씀도 많았지만 멀리서 오시는 조직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장관님, 차관님들을…… 회의를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국회의 위상에 대한, 특위의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그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조직위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였어야 되는데 책임자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짚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민주당의 간사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에리사 위원님께서도 앞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위가 매년 구성돼서 이게 일몰됐다 다시 구성되고 하는데 사실 구성을 하다 보면 원구성과 연계되어 있어서 활동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최대한, 정부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지원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또 여기서 발언하는 것들이 다 해당 상임위에서 근거가 돼서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우리 유진룡 장관께서 나오시고 또 안행부 차관께서 나오시고 해서, 저희가 바쁘신 분들 또 집행부도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앞에 지적도 있었지만 대회조직위에서, 물론 다 바쁘시겠지요, 여러 가지 경기대회 유치해 놓으면 투자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절반 가까이가 안 나오는 것은 특위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국회 지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들 선에서 한다면 실무자들끼리 만나면 되는 건데, 여기 위원들 지금 합해서 양당에서 한 10여 명 이상 나와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예결위원도 있고 각종 위원회 다 들어가서……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시간 내서 오신 자리인데 위원장들이 바쁘시고 또 국제회의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위 출석을 가볍게 생각하면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요.

위원장께서도 대회조직위원장들에 대해서 개별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회의록에도 남기고, 또 해당 조직위도 가서 정확하게 조직 내에서 공유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윤 우리 이에리사 간사님 그리고 윤관석 간사님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자체가 국제경기를 개최하는 지역에 최대한 예산 뒷받침도 해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위가 국회에 구성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군데 관련된 지역에서 책임자가 이러저러한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대면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 특위에 일종의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위 나가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뺏기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고…… 현장에 있는, 국제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래서 특위위원으로서 대단히 자괴감 비슷한 것을 느끼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특위가 정말로 평창동계올림픽,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런 국제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차제에 국회를 보는 시각 또 국제경기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 이거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자세 전환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윤 지금 양당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우리 김기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국제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특위 차원에서 예결위원장과 또 관계기관에 우리 예산을 증액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꽤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특위 회의를 함에 있어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특위 회의가 열렸을 때는 특위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경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지원함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위원장님들께는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뒷받침을 하고 또 국회가 특위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특위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님들의 출석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특위는 어떤 경우는 서너 명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두세 명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그만큼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등등 해서 국제경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유진룡 장관님도 참석해 주셨고 김종 차관님도 참석해 주셨고, 특히 우리 소관 부처도 아닙니다마는 안전행정부 이경옥 차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참석해서 뒷받침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조직위원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진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일 위원장님, 김상기 위원장님께는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님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리사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추가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렸고요. 이게 국제대회 유치기는 하지만 지금 특위가 개최될 때 저는 대한체육회 회장님이 항상 동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체육 관련 행사는 대한체육회(KOC)의 승인 없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없고 조직위가 구성될 때 KOC가 파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기는 공식적으로 이런 특위가 진행될 때는 항상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함께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권유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문제에 상당히 국내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 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를 이번에 함께 불러서 이야기를 듣자고 말씀드렸는데 법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음에 꼭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불러서 따로 한번 특위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그런 것은 꼭 한번 따로 불러서든지 빠른 시일 안에 특위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참석하지 않은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그리고 이미 종료가 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평가와 그리고 또 현안 문제를 푸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간사님과 윤관석 간사님도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윤 현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지금 양당의 간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동계올림픽특위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 어렵고 바쁜 가운데서도 특위를 이렇게 개최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대회를 치르는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거든요. 모인 자리인데, 오늘 저도 너무 놀란 것이 F1도 그렇고 아시안게임, 광주…… 강원도도 도지사님 보니까 1시간 뒤에는 회의를 하러 가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잠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갔다가 온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행부도 제2차관님이 오셨어요. 도대체 이 회의를 하자고 하는 건지 하지 말…… 아까 이에리사 간

사님 말씀하셨듯이 대한체육회 회장도 불참하셨어요. 지금 참석한 장관이나 위원장보다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거의 다 오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 내가 살펴보니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은 지금 해외를 나가셨다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온다 하더라도 강운태 시장님 같은 경우는 불참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지 말자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국립광주과학관 개관식에 참석해야 되고, 광주과학기술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되고, 이산가족 자유 상봉 기원 행사에 참석해야 되고, 시민과의 만남의 날 주관 이런 당면 현안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부산교육청 교육감이 이런 비슷한 자기 나름대로 현안문제 때문에 확인감사 때 불참하겠다는 것을 통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올라오라고 난리가 났지요. 공문을 다시 보내고 올라오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다음 날 새벽 3시 반까지 확인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바쁘시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주 하지 않고 이것같이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오는 쪽은 차등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특위에 안 온 쪽은 아예 논의조차도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오늘 불참하신 분들이 한두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등의 사유로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우리 특위를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안 온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대해서는 절대 오늘 논의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한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간사님과 김기선 위원님 또 현영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법률심사권과 예산심사권이 현재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불출석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앞에서 발언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참 슬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괴감, 참 국회의원이 이 자괴감 느끼면 안 되는데 자괴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중에는 스포츠에 남다른 관심도 많고 전문 식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사실 지난여름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을 모시고 죽 국제경기 남아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사후활용 등등을 볼 때 내가 참 대단한 열정에 감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무슨…… 제가 제일 전형적인 이해가 안 되는 불참 사유가 강운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경우 같습니다. 무슨 개관식이니 이산가족 자유 상봉 기원 행사 이런 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감히 국회 출석을 안 한다 이게 참 대단히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출석한 사람은 칭찬 정도 해 주고 불출석한 사람은 그냥 약간 경고하고 마는 선에서 그쳐야 되느냐, 대단히 실효성이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면 다음에 또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오늘 간사님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불참 사유일 경우에는 그 조직위원회는 아예 발언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총장이 와서 대신 발언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뭐 기념식 행사 때문에 못 왔다는데 사무총장한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예 퇴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바쁜 시간, 유진룡 장관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번에 또 김종차관님도 새로 오셨고 뒤에 또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김상기 조직위원장님 바쁜데 오셨는데 이렇게 바쁘게 오셔 가지고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분

하고 사무총장이,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분이 와서 대신 답변하게 하는 것하고 이것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 퇴장을 시키고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 부분은 양당 간사님이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현안보고

가. 2014년도 국제경기대회 관련 예산안

나. 건의사항 등 기타 내용

(10시34분)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국제경기 지원 예산안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영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윤 예.

○현영희 위원 현안보고 하기 전에 아까 강원도 도지사님 '잠깐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자리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말씀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런데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 계시려면 계속 계시고 아예 나가실 것 같으면 지금 바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윤 현영희 위원님, 그 부분은 긴급한 현안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사님이 일부러 여기에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잠깐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면 금방 되기 때문에……

○현영희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안 바쁜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고 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그것을 한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말.

○위원장 김재윤 현영희 위원님,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이석을 미리 허락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오늘 회의는 정기회라는 시점에 맞추어서 문화체육부 및 각 조직위원회 등으로부터 국제경기 지원과 관련된 2014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룡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열린 특위에 이어 다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6월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8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10월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 등 많은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제경기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개최 도시와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국제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향후 국제스포츠정책 수립을 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제경기대회 그간의 주요성과 및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에서 2쪽까지의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곧 이어서 조직위원회별로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경기대회 일반현황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고 3쪽의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실내대회 및 무도대회를 통합 운영한 첫 번째 대회로서 개최한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적 성격으로 운영되었으며 대회 운영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82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다 회원국이 참가한 대회이며 국제조정연맹 등 참가 선수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행사로 인정받는 등 한국 조정 경기력 향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포뮬러원 코리아그랑프리대회는 대회 운영시스템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했고 모터스포츠가 국내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2019년에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스페인 바로셀로나 국제수영연맹 총회에서 우리나라 광주로 유치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2017년 FIFA U-20 월드컵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개최국 정부 보증을 통해서 대회 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4일 브라질에서 개최국이 최종 선정됩니다.

보고자료 4쪽에서 6쪽까지는 국제경기대회 추진현황 및 준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잠시 후 조직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추진현황입니다.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 사무처 조직을 확대하였고, 향후 대회 준비단계별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분야별 전문가 확충을 통해서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 2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 맞춰서 6개 신설 경기장 및 7개 진입도로 건립 등 대회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2014년 정부예산으로 134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에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림픽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문체부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최 1년을 앞두고 사무처 조직을 확대했으며 경기장 49개소, 훈련장 51개소 등 대회 시설 건립 및 대회 운영을 위해서 2014년 정부예산으로 82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역시 사무처 조직을 확대했으며 경기장 23개소, 훈련시설 25개소를 확보하는 등 대회 운영을 위해서 2014년 정부예산으로 10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 37개소, 훈련장 39개소 등 대회 시설 건립 및 대회 운영을 위해서 2014정부예산안으로 71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쪽입니다.

최근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개최를 방지하고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치 신청 이전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승인 취소 건을 신설하고 총 사업비를 통제하며 대회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마쳤고 12월 중에 정부 발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국제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미래 국제경기대회의 유치·관리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없이 국제경기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유진룡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김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Paralympics) 조직위원장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국회 지원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매우 바쁘신 최근의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대회 그리고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특위를 열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대회를 유치하고 조직위원회가 창립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특히 지원특위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성공 개최를 위한 기초는 대체로 다졌다고 봅니다. 그동안 크게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2년간 이룬 토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경기장, 대회 관련 시설, 교통인프라 등의 시설 공사 착공과 더불어 문화행사 홍보, 마케팅 등 분야별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국회, 특히 지원특위에 거는 기대와 지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당장은 경기장, 교통망 등을 비롯한 대회 관련 필수 시설들이 계획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필요한 국비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스케줄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회 준비 기간이 3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이 매우 빠듯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유진룡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한 개최지의 적극적인 노력에 더해서 저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임직원 모두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 추진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회 준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조직위 보고서에서는 예산 부분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과 관련한 예산은 크게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시설예산과 조직위 운영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설예산은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국비 지원 신청이 이루어지고 조직위 예산은 약 1조 7000여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패럴림픽 분야 외에는 달리 국비 지원 없이 IOC 배분금과 자체 마케팅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몇 차례에 걸쳐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이 크게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별도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순서는 대회 개관,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향후 주요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대회 개관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회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지원체계 등을 구축하고 지난 9월 2단계 직제개편을 통해서 장애인올림픽 전담부서 신설 등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경기장, 교통인프라 등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부 시설은 착공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분야는 강원도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자세한 진행 상황은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금년 초에 IOC와 마케팅 협약을 완료하고 지금 국내 스폰서십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밖에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엠블럼 선포 등 대회상징물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최상의 경기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일련의 조치와 함께 IOC·IP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쪽,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대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행 계획과 대회 참가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계획들에 대한 마스터 스케줄 재점검과 함께 역공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의 공정계획에 또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분야는 정부, 강원도 등과 함께 대회에 필요한 시설이 사업 기간 내에 제대로 완공이 돼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점검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획은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관련 시설·인력·운영 시스템을 올림픽대회와 통합 운영하는

등 모든 대회 준비가 장애인올림픽을 고려하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스폰서 유치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원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위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주변에 많이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소치대회 이후 모든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문화행사 준비,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전 세계적인 관심 제고, 최첨단 경기 운영 기반 마련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6월 28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와 관련하여 많은 고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각별하신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장과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입니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8개 경기장에 총 6993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221억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충을 위해서 투입되는 사업비는 9개 노선에 총 3552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90억 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선을 2016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급수체계 개선 사업은 총 600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66억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장과 진입도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811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과 개발 계획입니다.

특구는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3개 시·군에 5개 특구, 11개 지구 27.6㎢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대회 관련 시설의 사후관리와 특구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국제대회 개최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슬라이딩센터는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가족단위 놀이시설, 엔터테인먼트센터 등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동계올림픽 유산으로 남기면서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실내수영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후활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서 최적의 활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위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경기장과 교통인프라 필수예산 적기 지원입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811억 원이 필요하여 정부예산으로 국비 1329억 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이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지원·협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2쪽, 급수체계 구축 예산 적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국비 30억 원 조기 배정과 내년도 국비 100억 원 반영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문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최문순 도지사님이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차 부득이 자리를 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김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 6월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기입니다.

먼저 오늘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와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유엔에서 승인하고 IOC에서 인정하는 국제대회로서 각국의 군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정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6회 대회 개최지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그 취지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6·25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라는 인식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적 관심과 성원, 범국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회가 인류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제경기대회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대회준비 기본개념 등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주요현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일반현황입니다.

대회는 2015년 10월에 열리고 24개 종목입니다.

현재 조직위는 1총장, 2본부, 7개 부로서 10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대회 상징물은 삼족오를 모티브로 해서 형상화하였고 마스코트는 즐거움과 행복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라온'과 '해'를 조합해서 '해라온'으로 정했습니다.

슬로건은 '우정의 어울림, 평화의 두드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국회에 건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일반현황 등은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국회에다가 제안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다른 조직위원회도 일반현황 보고는 저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의 중심으로,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의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4쪽,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6쪽,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중에 첫 번째 사안인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 총 사업비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재판단한 결과 주요 핵심사업이 누락되고 관련 사업비가

과소계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소요가 발생해서 당초의 538억 원에서 187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방부와 조직위에서는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국방비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군 자원 등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서 총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재원별 투자 중점으로서는 주요 행사 개최 등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를 집중 투자하고 지방비는 개최 지역 경기시설 및 도로 개·보수 등 시설비와 지역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익은 군 충성마트와 연계한 상품화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비 및 국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2014년 예산안은 215억 원을 요구하여 정부안은 108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직위 운영비 23억 원과 군사종목시설 설치비 73억 원, 대회운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12억 원 등 대회 필수 소요만 반영되었습니다. 14년 사업계획 중 군 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착수시기를 15년으로 순연 가능한 사업은 요구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초 요구안 중에서 14년 완공이 필요하거나 대회 개최 전에 시즘(CIS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부 사업비가 누락되어서 대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회운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완공소요 70억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 후에 각종 통신 및 전산장비 구축기간과 시범운영기간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14년 완공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국제방송신호제작비 149억 원과 개·폐회식 행사비 112억 원에 대한 착수비 각 15억 원과 22억 원은 추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방송신호제작비의 경우 14년 착수비가 미반영 되었을 때 관련 전문업체와의 계약체결이 어려워서 사업계획 수립 시 큰 차질이 우려되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문경지역 선수촌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실현 가능한 문경선수촌 확보 계획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서 시즘 조정위원회의 대회 준비 관련 시설 답사와 각종 지원계획 수립 등 대회 준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경권의 선수 참가 규모는 6400명 정도로서 대회 유치 신청 시 민자를 유치하는 선수촌 건립 계획은 현재까지 미착수된 상황이고 문경시에서 지난 1월에 제시한 조립식 숙소 건립은 국비 지원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위에서는 시즘 대회 준비 일정과 건물유형별 절대공기 등을 고려해서 선수촌 로드맵을 수립해서 올해 12월까지는 실현 가능한 선수촌 확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을 했고 내년도 1월까지는 선수촌 문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최소한의 국제경기대회 수준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14년 예산 중에서 미반영된 107억 원의 추가 반영과 한정된 국방비 및 개최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14년~1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증액 발행과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제안 중심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체육 발전과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이 특위에서 업무보고를 갖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3쪽 한 면입니다.

저는 우선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간략

하게 보고를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출발부터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나 개최 도시인 인천시나 장애인경기대회를 유치할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회인 광저우대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인 다음 개최지에서 대회기를 인수받지 못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회기를 인수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부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경기의 조직위는 최소 5년에서 7년 동안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장애인경기대회는 관심이 없는 상태로 계속 미루어 오다가 대회 2년을 남겨둔 작년 10월에야 조직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원들은 정말로 힘들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출했던 예산 599억 원, 제가 보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작성된 유치신청서의 대회 예산이었고요.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약 1360억 원이 필요하다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안이 1027억 원입니다. 1027억 원 중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시작되는 성화도 저희들은 전국을 돌지도 못하고 인천 시내도 돌지 못하고 마니산에서 성화를 채화해서 경기장으로 가지고 오는 예산밖에 반영을 하지 않은 돈이 1027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 일절 없앴습니다.

저희들은 이 경기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최대한으로 줄인 것이 1027억 원입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3분의 1, 시비 예산이 3분의 1, 조직위에서 확보해야 될 후원금이라든지 수익금 3분의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599억 원에서 1027억 원으로 증액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전할 예산은 약 13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재부에 올려 국회로 넘긴 예산은 지금 현재 계속 599억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돌아온 답은 예산 증가는 인정하나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그 후에 감사를 해서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졌다면 보전해 주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경기대회는 스폰서도 제대로 없고 지원도 제대로 없습니다. 다른 대회에 비해서 기업의 관심도 없습니다. 제 심정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과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평생 일어설 수도 없는 우리 선수들, 손발이 없는 선수들이 땀 흘려 온 그 땀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23쪽에 있는 최소한의 1027억은 반드시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 불참 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양당 간사 협의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데는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특위에 조직위원장이 불참하는 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사전에 조직위원장이 아주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조직위원장이 불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국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는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권경상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권경상입니다.

오늘 김영수 위원장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아시아 최대 방송기구인 아시아방송연맹(ABU)과 방송계약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국정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17일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도시로 인천이 확정되던 감격의 순간을 가슴에 안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2013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아시아지역 44개국에서 2472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감동과 우정의 드라마를 보여 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회는 관중 부족 등의 문제점을 언론으로부터 지적받기도 했지만 기존 실내아시아경기대회와 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합해 열렸던 첫 대회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흑자 대회로 치러 냈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현장운영 경험을 쌓는 등 안팎으로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폐막한 제94회 인천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현장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인천시와 협력하면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308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치렀던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잘된 점은 더욱 가다듬고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은 완벽하게 보완해서 내년 아시아경기대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화합과 배려의 대회, 최첨단 IT와 친환경대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내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대회개관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내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개최되며 36개 종목에 45개국 2만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총장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예, 일반현황 생략하고 건의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저희한테 제일 아쉬운 사항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그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그러면 16페이지, 2014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계획 규모는 총 3487억 원입니다. 수입규모는 국고보조금 1008억 원, 시비는 780억 원, 자체수입은 16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대회운영사업비 3284억 원, 행정운영경비 147억 원, 예비비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운영비 국비지원 사항에 대한 건의입니다.

내년은 인천아시안게임의 대회준비를 최종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 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직위가 신청한 국비 1008억 원 중에서 405억 원이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대회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국비 603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마케팅권리인수금 조세감면 법령개정 지원 건의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제대회의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아쉽게도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IOC나 OCA 등의 국제기구와 마케팅수익 분배에 관한 면세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

회 김윤석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경기대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한성 위원 위원장님, 사무총장이 충분한 사과를 지금 안 하는데 저래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못 온 이유를 설명해 봐요!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우리 총장님, 잠깐 우리 조직위원장님 못 오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저희 조직위원회는 두 분의 공동위원장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한 분은 새누리당의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이시고 의원님이신데 지금 해외에 출장 중이시고요, 한 분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신데 오늘 지역에서 중앙부처와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국립과학관 광주분관 개관식이 있어서 거기서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하고 또 과학기술 분야 관계자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오늘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래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다음에는 꼭 위원장님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예,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국제경기대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종합스포츠대회이며 특히 미래를 이끌어 갈 전 세계의 젊은 지성들이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으로 함께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2010년 2월 출범 이후 'Light Up Tomorrow'라는 슬로건하에서 대회 성공을 위한 준비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대회, 평화·인권 대회, 최첨단 IT 대회, 문화 대회를 4대 가치로 규정하고 6년의 준비기간을 3단계로 구분해서 경기기획, 선수촌 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밑그림인 마스터플랜과 액션플랜을 수립하였고 경기진행계획, VOP 계획 그리고 개인별 행동매뉴얼까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대회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을 건립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한 76개 경기장 중 3개의 경기장만 신설하고 나머지 73개는 기존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경제적인 대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촌은 35년 된 주공아파트 5층짜리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건축하고 있으며 이미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수촌 관련 비용은 100% 민자로 충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제대회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일로 국내는 물론 국제스포츠 관계자들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단일팀 성사를 위해서 공동노력 하기로 UN과 우리 조직위가 체결한 협약과 2013년 7월 카잔에서 열린 FISU 총회에서 남북단일팀 구성 승인, 또한 금년 8월에 개최한 UN 유스리더십 캠프에 북한 청소년 4명이 참가한 것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회의 흥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적인 것은 다 생략하고 건의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2014년 예산안은, 총 예산 8171억 원 중 44.2%인 36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국비는 1108억 원입니다. 운영비는 대회통합시스템 구축, 선수촌 부대시설 설치 등 1100억 원이며 시설비는 신축 경기장 공사, 경기시설 개·보

수 등 2513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안에 국비 1108억 원 중 64%인 714억만 반영되어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미반영된 국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4년은 대회 1년 전으로서 경기시설 공사나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테스트 이벤트 등이 본격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국비 예산 1108억 원 중 64%인 714억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선수촌 부대시설 공사와 국제방송신호 제작 등 필수적인 사업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년 국비 예산 1108억 원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9쪽으로 대회 후원기업 유치입니다.

후원기업 유치를 통해서 자체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직위원회는 국제연맹과 3년간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모든 마케팅 권리를 이관받았고 마케팅 수입은 국제연맹이 아닌 우리 조직위원회가 100% 갖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SK텔레콤과 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케팅 대행사 선정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의 이개호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개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깊은 양해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준영 도지사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됩니다마는 본 회의보다 먼저 예정이 되어 있었던 해외투자 협약식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와 함께 우리 F1대회에 대해서 그동안 보여 주셨던 따뜻한 애정에 특별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귀국 후에 반드시 찾아뵙고 그러한 감사와 양해 인사를 함께 드리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해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위원장께서 반드시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대회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를 하였던 대회 개최 성과와 건의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또 국내 대중 스포츠로 모터스포츠가 정착해 가는 그 과정을 확인한 그런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IA와 개최권료 인하 재협상을 해서 금년에 200억 이상 개최권료 인하를 함으로써 그동안 우려가 되었던 대회 수지, 특히 적자폭을 크게 줄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세 차례 대회 경험을 통해서 금년 대회는 정말 안전하고 즐거운 또 완벽한 대회로 그렇게 개최를 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립니다.

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에 F1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성과를 통해서 볼 때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지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함께하는 그런 대회의 원년으로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과제는, 앞으로도 대회 수지 개선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익 확대는 물론이고 F1대회 개최권료 추가 인하 협상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건의도 함께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대회 개최 시기가 현재 약간 유동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대회 개최 측으로부터 4월 개최 통보가 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현재 계속 협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과제 세 번째로 F1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이미 확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 자동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산업 기반구축사업도 반드시 F1대회 주변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1경기장 인프라를 활용한 모터스포츠 종합레저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건의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1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지원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 지원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총 예상되는 운영사업비가 68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0% 수준인 204억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올립니다.

두 번째는 시설 확충 지원 건의입니다. 현재 녹화사업 또 경기장 개·보수 그리고 관람석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특별교부세 50억을 안전행정부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안전행정부 이경옥 차관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저희 안전행정부에서도 국제대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도록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차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현영희 위원님……

○윤호중 위원 그만하십시다.

○현영희 위원 뭘 그만해요?

○위원장 김재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아니, 그만하다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윤 현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현영희 위원 충분히 말씀해도 또 할 이야기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아니, 오늘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 위원 예.

○현영희 위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어떤 상식에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한성 위원님 혼자 계십니다. 질의할 위원이 새누리당에 지금 혼자 계셔요. 지금 어떻게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앉은 이쪽 위원들만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김재윤 현영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들어오시……

○현영희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까 잠깐 나갔다 오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스케줄이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하루 종일……

○김현 위원 염 위원님 들어오셨어요,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

○현영희 위원 여기 오전 중에 11시에서 10분~20분 설명회 하고 12시부터 기념촬영 하고 점심 먹고까지 다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무슨 회의를 진행합니까? 저 정말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참석하지 않은 위원장에 관한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하여튼 우리 현영희 위원님 그 말씀……

○현영희 위원 우리 국회를 위원장님……

○김현 위원 지금 상임위 혼자 하시는 것 아니

잖아요.

○현영희 위원 이거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윤 하여튼 우리 현영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정기국회 예산 국회를 놔두고 뭔가 우리 경기특위가 평창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챙겨 보자 해서 오늘 이런 회의를 소집했는데 우리 위원장 되신 분들이 다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들도 회의를 제때 시작 안 했어요. 10시면 10시에 시작해야지 위원들이 10시 15분대에 나타났어요. 우리도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해서 금년 예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진선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현안업무 보고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라든가 강원도 업무보고를 들어 보면서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요, 알펜시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론이 나야 모든 문제가 풀려간다고 보는데 그 추진 상황도 얘기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도 않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무슨 얘기도 않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진선 위원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알펜시아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할 성격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적어도 우리 위원장께서는 알펜시아 관련해서 원초적인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울러서 알펜시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건설이 됐고요, 또 지금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아주 핵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위도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우선 이야기 좀 듣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많은 기회에 건의도 다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보고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백재현 위원 지난 6월 달에도 별다른 보고사항이 없었고, 어쨌든 간에 6개월이 지났으면 그 동안에 알펜시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추진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야 될 거고, 적어도 가장 핵심 아니에요, 알펜시아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면 알펜시아는 현재까지도 자금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근의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숙박률도 도내에서 제일 높고 경영수익 면에서는 금년 말로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최근에 분양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좀 압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알펜시아는 올림픽 핵심지구일 뿐만 아니라……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핵심지구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지구답게 운영해 나가고 문제를 풀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면……

○백재현 위원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기본적으로는 분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백재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분양률이 좀 올라서 30% 수준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아직도 70%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리고 이것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투자도 촉진시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상황에 넣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한 줄도 없어요. 이게 한 줄도 없어요, 강원도에도 없고 올림픽위원회에도 없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강원도에서 실장 누구 나와 있습니까? 지사님은 안 계시지만 누구 거기 관계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알펜시아 관련돼서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이것은 직접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알펜시아사업은 지금……

○백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김진선 위원장님 처음부터 이 일에 관여했던 일이고 지금까지 죽 내용을 아시니까,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문제의 핵심은 부채가 있는 관계로 한 자금유동성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가벼이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정부가 그것을 사 줘야 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건의하고 있고 저도 그것이……

○백재현 위원 김진선 위원장님이 보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정부가 해 줬으면 되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제가 보기에는 민간방식으로 운영되는 콘도라든지 빌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중에서 스포츠지구, 그러니까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체육 시설이고 또 올림픽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백재현 위원 정부가 매수를 해 달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정부가 매수라기보다도 대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등등 해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백재현 위원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약 2000여 억 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유진룡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지금 우리 김진선 위원장이 알펜시아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요.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것을 성공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알펜시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달려 있어요.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면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가는 거고 그것을 지금처럼 계속 문제를 안고 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1년에 예산이 이자만 해도 수백억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문광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시설과 관련된 것은 체육진흥공단을 통하든 체육회를 통하든 문광부가 예산을 투입하든 몇 가지 시설을 사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용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가 그 시설을 인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처음에 그것을 지을 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 잘못은 무조건 다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야단칠 것은 야단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감옥에 보내고 싶으면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서는?

○위원장 김재윤 백재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묻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진선 위원장님 그리고 장관님 함께 봐 주시지요, 앞에 보시면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결정체가 결국은 기술상품마케팅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외국에 많이 알려서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것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다음, 창조란 무엇이겠습니까? 융합, 결합, 묶음, 합체 이런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목적이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국가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의 가치를 높이는 거지요. 그리고 개최 도시를 세계 속에 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2018동계올림픽도 국가의 기술력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에 많이 파는 것이고 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창조경제이고 또 올림픽을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두 번이나 갔습니다마는 397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런 상품마케팅을 함께 디자인하는 거나 또 그 개최 지역을 세계적인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에 대한 팀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역대 국가 행사를 보더라도 대전엑스포 그리고 여수엑스포, 대구육상경기대회 등 대회준비, SOC사업, 경기장은 여러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술상품마케팅 전략이나 문화관광 전략은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겁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1일 345명, 그러니까 강원도조직위원회 그리고 정선·평창·강릉 350명의 인원들이 매일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그리고 배후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상품을 팔 수 있는 전략은 전혀 전무하다, 그래서 이 조직위가 또 이 대회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보면요 위원장에 국무총리가 있고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에 각부 장관이 있습니다마는 실행 부서가 없다, 지금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그러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동열 위원 페이퍼 회의만 한 번 했고요.

다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이 조직위나 강원도나 강릉·평창·정선을 한데 묶는, 융합하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올림픽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시스템 자체가 전혀 부재하다, 제가 1년 반 동안 뛰어 봤습니다마는 각기 다른 구상을 갖고 있고 각기 다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가 여러 번 보니까 2, 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명이 지금 전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국가의 대형행사를 통해서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고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기술상품을 팔고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김진선 위원장님 잘 아시지요? 이 도로가 뭐냐 하면 저 파란 선이 현재 고속도로 4차선이고요 그 위의 보라색이 456지방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새롭게 진부역에서 올림픽 개최지까지 나는 도로인데요. 진부의 인구가 지금 9000명이고 횡계·대관령 인구가 5000명

인데 올림픽 이후에 이 도로, 1214억이 들어가는 도로는 사실상 교통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는 1214억의 돈이 결국은 국가의 재원 낭비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도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도로가 필요하고 또 올림픽을 위해서 수송계획, 개·폐회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이왕이면 이 도로를 다목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 몇 백억 정도만 더 얹게 되면 다목적으로 관광도로 또 관광철도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램을 제안했습니다, 1년 동안. 이 트램은 길 위에 가는 트램입니다. 좀 이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마는 올림픽 이후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도로보다는 이 도로에 관광열차를 좀 가미한다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여 주고 그를 통해서 많은 상품을 팔 수가 있다, 일본은 동경올림픽 때 신칸센을 했고요 그리고 삿포로 때는 인공위성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환경올림픽, 환경올림픽'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올림픽에 대한 어젠다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올림픽으로서의 핵심적인 시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도로를 관광 또 여러 가지의 다목적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올림픽 수송 때 안전이 담보됩니다. 지금 현재는 버스라든가 일반 자동차만 운행이 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폭설 또 접촉사고 등을 했을 때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도 정도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로로 인해서 진부의 주민과 대관령 주민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트램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런데 이 트램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는데 무전선입니다. 전선이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로 하고 있고요. 그 배터리가 한 번 충전하면 25㎞를 달리는데 이것이 잠시 정지할 때 무선으로 급전 충전이 됩니다, 한 1~2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산악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환경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공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마 지하철의 8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로하고 철도하고 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때 자동차로 순환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수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대체로 이런 트램을 만들어서 관광에도 쓰고 또 올림픽 때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1214억에다가 한 300~400억 더 보태면 이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관광철도가. 도로 위의 겸용 철도지요.

그래서 장관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관광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동열 위원 어떻게 한번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고 더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상의해 보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조직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우선 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저희 조직위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목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목에 진부-알펜시아 도로라고 돼 있는데 그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는 알펜시아 리조트만 가는 게 아니고 횡계지역, 그다음에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 그리고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전체 연결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부-횡계 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그렇지만 올림픽 수송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직위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교통연구원에 올림픽 수송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진부역에서 개·폐회식이 열리는 횡계 바로 인근지역까지 이 도로, 이 교통노선이 올림픽 기간 중에도 지체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할 뿐만 아니고 올림픽 이후에도 이쪽 지역에 변화가 있고 여기는 지역주민

뿐이 아니고 관광객까지 단 1분 1초라도 빨리 수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제3의 운송수단, 지금 말씀하신 트램, 스카이카, 모노레일 또는 심지어 자기부상열차 등등 이런 것을 같이 얹어서 하면 이 지역 일대에 앞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유용하게, 역내 교통망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을 추가로 명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일단은 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단계까지는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또 선정 문제, 절차 등등. 그리고 지금 사업비도 400억~500억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반공사비 외에도 열차구입비 등 해서 기천 억 원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도로는 기본적으로 예산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내년 1/4분기 내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셔틀도로를 완공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도로는 발주하고 트램 관련된 제2 제3의 운송수단 문제는 추후로 계속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열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추가질의 때 쓰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짤막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특별히 시간 배려를 해 드렸는데요.

○염동열 위원 예, 죄송합니다.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각기 자기 업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발 물러나서 조금만 보태고 조금만 융합을 시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우리가 1214억을 쓰면서 조금만 더 보태면 올림픽 핵심 프로그램인, 정말 관광지로 만들어서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 이러한 시스템의 부족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본 결과, 결국은 각 부처의 업무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러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장관님, 제발 이 도로에 대해서…… 아마 핵심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 산악 관광철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 한번 깊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조직위원장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산악트램이 함께 개발돼서 관광도로 또 산악 관광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어제 그리스에서 온 손님을 만났어요. 제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가서 사귀었던 사람들인데 어제 다른 일로 서울에 와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죽 나누면서, 그리스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가 왜 이렇게 국가부도가 났는지 아느냐, 아테네올림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혹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장관님? 그리스 올림픽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하고의 관계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가 직접 분석한 거는 아닌데……

○안민석 위원 그런 자료 혹시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런 자료가 있다는, 그리고 거론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보셨어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제가 직접 그 수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지난 6월 달에 여기 이한성 위원님하고 김재윤 위원장님하고 함께 밴쿠버하고 솔트레이크 지난번 동계올림픽 개최했던 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감당 안 되는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짓고, 어쩌면 평창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축복이 아니라 강원도에 재앙이 올지도 모르겠다,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공직에서 다 떠나실 겁니다. 유 장관님 그때 뭐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관 안 하겠지요. 또 존경하는

김진선 위원장님 아마 공직을 떠나 계실 것 같고요. 여기 계신 강원도 국회의원님들 그때까지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릉시장님, 평창군수님, 최문순 지사님, 누가 책임질 겁니까?

평창올림픽이 강원도에 재앙으로 닥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아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내 책임 아니라고 할 거예요. 대박이 나면 전부 다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겠지만 쪽박 차고 재앙이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평창올림픽이 우리에게 축복만은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나 조직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올림픽에 대해 가지고 국내에서 좀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왔고 밴쿠버하고 솔트레이크 다녀온 이후로 국내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 봤는데 저의 결론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심각한데 답이 없다는 데 더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 강원도 의원이라 그러면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강원도 후세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재앙을 짊어 주지 않을까 그 고민 때문에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강원도하고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제가 이런 우려 하고 대안을 만든다고 해서 저에게 표가 되겠습니까, 후원금 한 푼이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대안을 찾아봤는데 대안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답답한 마음만 이 자리에서 전한다는 게 정말 더 유감스럽고 답답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님,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세계 각국의 연맹하고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이게 동계 종목이라는 것이…… 국제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되겠지요? 공식적인 미팅에서는 영어를 하지만 각 종목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무진 사이에서 쓰는 언어가 뭡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불어하고 영어지요.

○안민석 위원 불어로 알고 계세요? 큰일 났습니다. 독일어예요, 독일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종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지요. 독일어를 못 하면 연맹, 특히 설상 종목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세계 연맹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는 기본이고 독일어를 해야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공식적으로는 지금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공식적이지만 자기들끼리는 독일어를 못 하면 명함을 못 내민다는, 현장에서 다 그런 이야기인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글쎄요, 그 지적을 저희들이……

○안민석 위원 그걸 동의하지 않으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저희들이 지적은 이해하겠는데요, 명함까지 못 내민다는 것은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안민석 위원 독일어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독일어를 하면 더욱 좋지요.

○안민석 위원 독일어를 하면 좋은 정도입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말씀하시지요.

○안민석 위원 잘 파악을 해 보세요. 독일어가 영어보다 더 중요한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일……

○안민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독일어 하면 좋은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조직위 내에서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는 경기인 출신이 전체 직원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일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일부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안민석 위원 누구입니까? 영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는 경기인 출신이 누가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경기인 여직원도 하나 있고요, 우수한 여직원도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한 명이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두 개 다 유창하게……

○안민석 위원 혹시 그분이 누구인지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김연지라고……

○안민석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스포츠매니저는 약 20여 명을 우리가 뽑아 놨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조직위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180여 명입니다.

○안민석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80명 중에서 영어하고 독일어를 잘하는 경기인 출신이 그 여자직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180명 중에서 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조직위가 IOC하고의 관계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국제연맹들하고의 관계인데 국제연맹하고는 실질적으로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종목에 대한 경험이 있고, 여기가 순 안면 장사하는 세계인데 안면이 있는 그쪽의 전문가 경기인 출신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부분이 커버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당장 2016년도에 프레대회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게 왜 보완이 안 됐는지 반성을 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성공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내부를 한번 죽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잘 대비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독일어뿐 아니고 다른 언어도 저희들이 앞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는데요, 문체부 유진룡 장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준비가 돼 가고 있는데 내년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내후년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올해 7월에 보니까 FISU 총회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공식 승인……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받았습니다.

○윤호중 위원 받았습니까? 장관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호중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서부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적극으로 나서서 추진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단일팀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단일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호중 위원 왜 준비를 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대화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쪽에서 준비를 하고……

○윤호중 위원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승인을 받아 놨는데 남북 간에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호중 위원 그러면 그런 작업을 시작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이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전면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우리 스포츠를 둘러싸고 남북관계에서 스포츠 대화, 스포츠 외교 이런 것들이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이렇게 뒤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착종돼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의 물꼬를 트고 활성화해 내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북한 쪽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윤호중 위원 아니, 제안도 안 해 보고 어떻게 문을 안 열었다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쪽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제안은 해 봤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공식적으로 제안은 안 했습니다만.

○윤호중 위원 우리가 개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저쪽에서 손 내밀어서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럴 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생각에는 행정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저희가 하기로 결정이 되면 금방 진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제안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호중 위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행부 차관께 한 가지 여쭙지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조직위원회 기구는 확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회의 인원 확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회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일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도가 지원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본부에서 경기장이라든가 관련된 진입도로라든가 SOC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관리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현재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계올림픽 추진본부를 80명으로 보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그래요. 안행부 입장은 뭡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저희 안전행정부에서 강원도 관련 시군하고 지금 업무량 분석을 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논의는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宰榮 委員 새누리당 이재영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제가 기재위 국감 때 기념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무슨 조치가 취해진 것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질의를 몇 번 드려 봤더니 경기 운영 측하고 얘기가 잘 안 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서요, 혹시 진짜 그랬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먼저 이재영 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기념화폐를 제안해 주신 것을 아주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한국은행과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발권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이것 꼭 좀 챙겨 주시고요.

평창올림픽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 800억 정도가 2년 동안 이월이 됐더라고요. 집행이 안 된 건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예산을 책정하고 검토 과정에서 좀 착오가 일어나서 못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이 집행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상한 데 쓰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나 이런 게…… 저야 강원도에 대한 사정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역상황을 잘 아시는 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서도 아주 잘 만드셨는데 지금 예산이 쓰이는 데 있어서 향후 어떻게 쓰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 예산이 쓰이는 만큼, 소위 말해서 500억 쓰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아까 랜드마크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宰榮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김진선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대한체육회와 평창올림픽위원회는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대한장애인체육회와는 아직 안 했는데 그것 서둘러 달라고 얘기했는데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뿐 아니고 실제 KPC 하고 저희하고 의견의 접근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다소 지체되었는데 바로 결론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올림픽이 어떤 일반 올림픽에 비해서 너무 무시당하지 않는 선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유진룡 장관님, 내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있고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대회를 인천시가 관할을 한다고 하지만 내년의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이 두 조직이 사실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예산이 100%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간에 공동협업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셰어링(sharing)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평창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죄송하지만 문화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조직위 간에 공동협력팀 같은 것을 하나 만들게 해서, 문화부가 어차피 지금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동익 위원 그리고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 제가 참 서러움을 느끼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IPC 같은 경우는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함께 공동으로 치러지는 것이 협약이 됐고 다만 아시아의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위원회하고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위원회하고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조직적으로 하나로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지난번에 인천 쪽에서 대회를 유치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한국에서 유치하겠다고 깃발을 받아왔어요.

물론 그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 현 회장이 아니라 전에 했던 회장의 문제점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받아와 놓고는 이것을 지금 그냥 인천에다 던져 놓은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인천시 입장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문화부나 기재부 입장에서도 예산상의…… 그때 599억 결정 났던 것은 600억 미만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심사 과정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599억으로 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유치를 했다면 그것은 문화부의 승인하에 있었던 일이지 결코 이 책임을 전부 다 인천시에다가 떠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장관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경기에 외국에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야말로 불편함 없이 또 푸대접 없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한번 직접 챙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게 승인 여부를 떠나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한 다음에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리고 유치료라고 그러나요 권리금이라고 그러나요, 인천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무슨 세금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도 그 부분을 광저우는 100만 달러였는데 인천에다가는 500만 달러를 요청한 것 같아요, 장애인경기대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스포츠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하든가 조율을 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조율돼야 되는데 이것은 유치를 해 놓고는 그쪽 조직위에서 국제기구에서 부르는 게 값인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가 관할 책임부서로서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수백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도 500만 달러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협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데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점검을 확실히 해 가지고 유치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유진룡 장관님과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안전행정부의 차관님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가 2015년도에 세계군인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각별히 이 특위의 활동에 관심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저도 구하는 중입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김상기 조직위원장님 새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이시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하여튼 이제까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훌륭한 경륜을 쌓으시고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위해서, 또 분단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분골쇄신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뒤의 박성우 사무총장님, 종전까지 조직위원장을 맡고 수고하시다가 또 사무총장으로서 조직위원장을 보좌하시면서 큰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우 감사합니다.

○이한성 위원 여기 건의사항을 죽 보면 좀 답답한 게 느껴집니다. 불과 2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걸려 있어서 조직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상북도나 문경시도 다 한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수촌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선수촌 문제는 시와 협조가 잘 안 되던 시절에, 그때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인사복지실하고 체육부대하고 문경시를 많이 다니면서도 이것이 저하고는 소통이 좀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점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나 문경시에 대책을 잘 내놓도록 대화를 해 주시고 방법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공사기간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후보지군을 잘 선택해 주시고 그것이 또 시즌, 요구사항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일 문제가

운영비가…… 종전의 538억에서 운영비 플러스 시설예산까지 다 포함한 거지요, 이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1872억으로 늘어났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부담할 시설비는 얼마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예정을 했던 건데 주로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하는 거라든지 또 무슨 방송장비시스템 구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이런 당초에 생각지도 못 한 것이 한 1334억이 늘어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문경시 같은 작은 지자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감히 하겠다 그랬겠느냐,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최초 유치단계에서 기재부에 국제대회 승인을 받으면서 문경하고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경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자료를 538억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국제대회……

○이한성 위원 군에서는 참여 안 했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이한성 위원 군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국제대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조직위에서 '과연 538억으로 국제대회를 최소한 수준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해 보니까 '적어도 2056억 원은 되어야 기본적인 모습은 갖춘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조직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절감 방안을 전부 추려서 정리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872억인데, 여기에는 누락된 사항도 있고 너무 과소평가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실화한 겁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2050억 나온 것을 다시 1872억으로 줄이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400억 되지 않습니까, 400억 되는 중에서 이것도 당초, 경상북도 측에서도 이것을 지금도 동의를 쉽사리 하지 않는 중인데 7 대 3 분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프지요?

그래서 7 대 3으로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문경시는 12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280억을 부담해야 되고. 이게 경상북도나 문경시로서는 보통 부담이 아니다, 538억으로 했을 때도 한 160억을 또 나눠야 되는데 문경시가 한 오륙십억이 되고 이것도 상당히 지자체로서는 빼낼 재간이 어려운 판인데 추가로 120억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참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국제경기인데 이런 것을 문체부하고 협의를 잘 좀 더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래서 문체부하고 국방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체육진흥기금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항목을 포함했고 지금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이 시점부터 문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보고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갖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거기 보면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주로 문체부장관님한테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자리를 뜨고 계십니다마는 안민석 위원님께서도 스포츠 전문가이시고 대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대회를 동료 위원님들이 다 열심히 성원하고 계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타 대회를 언급하기는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타 대회에 비하면 이건 아주 거저먹기 행사거든요.

지금 운영비 2000억도 안 되는 이것 가지고 하고 시설비가 한 푼 들어가…… 시설비가 좀 들어가지요, 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333억 들어갑니다.

○이한성 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도로 하나 하는 데 몇 천억씩, 몇 조짜리 철도를 새로 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국군체육부대가 문

경으로 가서 그게 한 4000억 드는 공사겠지요.

그것 완공을 9월 달에 해 가지고 입주를 해 가지고 최신시설에 수리할 것 하나도 없이 또 기왕에 진입도로는 다 다른 예산으로, 지역발전예산으로 다 닦아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겨우 1872억 이것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계통이 국방부 계통이라 가지고 문체부에서는 협조에 아직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계시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MOU도 하셨다는데 국방부로서도 우리나라 선수 자원 이런 것을 체육부대도 많이 양성도 하고 그러면서 경기대회는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상생하는 조치를 장관님 방침이 섰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직 방침을 결정은 못 하고요. 아무튼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워낙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이한성 위원 이게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이한성 위원 그런데 워낙 이게 칸막이 비슷하게 국방부 계통이라고 해 가지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이런 면이 저는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승인을 해 놓은 상태니까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님하고 또 기재부의 담당자와 문체부의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고 국무조정을 받아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이한성 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직위원장님은 이제까지의 경륜을 바탕으로 잘 좀 활동하셔 가지고 이 매듭을 잘 푸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사실 체육 국제대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고 성공 개최를 해서 또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다 성공을 했을 때 정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좀 지나친 지자체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어떤 국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빚으로 다 치러지고 나중에 이 감당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국은 그게 모두가 우리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정말 됩니다.

제발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고 사후관리가 정말 잘 되어서 정말 성공적인 우리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정부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동계 빙상 중에서는 얼마 전에 이상화 선수가 500m에서 세계신기록 낸 것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현영희 위원 지금 솔직히 동계체전에서는 유일하게 쇼트트랙, 스피드, 피겨 이것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국군체육부대 동계 종목의 선수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동계 종목은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발 운영하되 19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국방부장관님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협조를 해서 연장하는 그런 것으로……

○현영희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동계올림픽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해체를 한다, 도대체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현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속, 동계 종목이 살아 있는 한 계속 이것은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선수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강원 지역의 총학생회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군대에 존재하는 상무팀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현영희 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현영희 위원 그다음에 여러 국제대회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하계 88올림픽 다음으로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김진선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구촌을 맞이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아마 장애인들도 오시고 노인들도 오시고 하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현영희 위원 그런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치러야 되는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영어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제가 약자로 BF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증제도 개념 아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저희가 패럴림픽은 'Actualizing the Dream'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있고 지금 IPC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보입니다.

○현영희 위원 잘 보이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현영희 위원 동계올림픽의 경우에 이렇게 죽도표를 보면 13개 경기장 가운데에서 신설되는 경기장은 지금 6개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래서 나머지 경기장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예비인증 받기 위한 컨설팅 준비하는 데 7개소가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이것은 오늘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특히 신설 경기장의 경우 설계부터 BF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애인·비장애인·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유념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출신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지금 제가 되게 착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문화관광부장관님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오신 분, 동계올림픽유치특위에서 이 자료 다 보셨나요? 이 자료,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올려놓은 것 혹시 꼼꼼히 내용까지 다 보셨나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꼼꼼히는 아니고……

○김현 위원 안 봤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혹시 이것 외주 주거나 이것 제작하는 데 관여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까? 외주 준 것을 담당한 이 주무 책임자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이것대로 되면 동계올림픽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건설추진단장 한경호입니다.

○김현 위원 이것대로 되면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지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그렇지 않…… 그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김현 위원 모델입니까?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완을……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동계올림픽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영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된 건가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경제성이나 여러 면에서 제안을 한번 받아 본 겁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 경기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가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사후관리입니다. 적자 올림픽이 나지 않도록……

○김현 위원 사후관리인데 적자 올림픽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고려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뭔가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사후관리 운영비가……

○김현 위원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네 분이 알펜시아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판에 박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리에 들어가세요.

장관님, 지난번에 이 문제 관련해서, 알펜시아 문제 관련해서 들여다보기로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몇 개월이 지났지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장관님 차원에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김진선 위원장님, 먹튀 아닙니까, 먹튀? 먹튀라는 말 아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제가 잘 써 보지 않아서……

○김현 위원 먹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알펜시아 문제 얘기하니까 '잘 된다. 그리고 지금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도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닥 심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니, 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김현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숙박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도 수익이 좋아지고 있고, 경영의 수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근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부채 1조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제가 심각한 게 없다는 게 아니……

○김현 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위원장이 보셨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건 제가 다는 읽어 보지 않았고……

○김현 위원 어떻게 이것 책상에, 위원들한테 올려놓았는데 다 보지도 않고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올려놓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김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 아닙니까, 돈을 1억원이나 들여서 외주를 줘서 문화부의 사단법인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도 않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저는 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요지를 다 알고 계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김현 위원 여기 알펜시아 사후관리에 알펜시아는 두 줄 달랑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속초나 워터파크나 아니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기업에서 광고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특정 회사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게 사후 활용방안입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후에라도 그것이 강원도에 크나큰 엄청난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건데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지고요. 도지사 시절에 자리에 임명했던 분 버젓이 교수님 하고 계시잖아요.

안행부 차관님, 그때 감사원 감사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 국감 때 이것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회계감사였고 정책감사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제가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김현 위원 아니, 그날 같이 계셨잖아요? 특위 회의면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난번 국감 때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하겠다고 답변하는 그런 행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때 지적된 사항을 오늘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가지고 나와야지요.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문화관광부는 책임 못 지겠다 그러고 김진선 위원장은 잘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책자에서는 지금 장밋빛 환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차관은 내용도 모르고 지금 확인한다 그러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 제가 정책감사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솜방망이 처분으로 알펜시아 문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조 원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고 하루에 1억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먹튀가 아니면 뭡니까?

조직위원장이니까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4대강과 마찬가지로 재임 중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재임 끝난 다음에는 정책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안행부에서 반드시 다음번 예산심사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특위 회의라고 그렇게 준비 안 하고 나오지 마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우선 김현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는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이 지역에 명품 리조트를 하나 만들면 앞으로 승산이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 바가 있고 아울러서 올림픽 준비를 위한 선행 투자사업으로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으로 했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이 과정에, 지금도 안고 있지만 자금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시기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고 우리나라 전역의 분양시장들이 얼어붙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또 알펜시아는 올림픽 유치에 아주 기여를 했고 앞으로 또 올림픽 개최의 아주 핵심 지구가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현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김현 위원 제가 그런 치사를 들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치사가 아니고요……

○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주요 발언 2006년 3월 '기업을 경영한 경력도 없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알펜시아 입구에 교회를 지으려는 계획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의 진정한 CEO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지금 사장으로 앉혀 가지고 1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으면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지금 공치사를 하고 허장성세를 부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니, 치사가 아니고 김현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치사가 아니고요.

○김현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강원도 국감에서도 얘기했고요, 지난번에 문광부장관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 앉아 계신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도 지지 않고요, 국가도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1억에 걸쳐서 만든 이 자료에 알펜시아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잘나가고 있는 리조트를 어떻게 더 돈을 벌게 만들 건가를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 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알펜시아 리조트는 민간개발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김현 위원 그러니까 먹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함께 세일즈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지금 정부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 듣고도 그 얘기 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정부뿐이 아니고, 지금 알펜시아 분양이 핵심적인 것이니까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신뢰를 받도록 함께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김현 위원 그럼 잘못했다, 그동안 잘못했다, 그런데 이걸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야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이미 수없이 기회가 있어서 더러 했고요……

○김현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니, 많이 했고요……

○김현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재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김현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현 위원 예, 19대 들어와서 제가 한 번도 위원장님의 잘못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수년 된 얘기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앞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님도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위원장 김재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후 활용방안' 이 책자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미리 특위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 보고서를 각 특위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꺼운 자료가 놓아져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순 면피용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가 8월 30일 날 완료된 보고서 아닙니까? 왜 미리 안 나눠 주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장에서 이 두꺼운 자료가 놓여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올림픽 사후 방안이라는 게 경기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을 다 이야기하는 거고 올림픽의 레거시(legacy)가 올림픽 성공의 굉장히 중요한 50%가 되는데 당연히 알펜시아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부러 제목을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방안으로 해야지 알펜시아가 들어가는데 이 제목 자체로 봐 가지고는

알펜시아가 안 들어가도 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실하고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시설 활용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이제 오늘 받았으니까 각 위원님들이 보고서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별도의 특위를 개최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알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오늘에야 책상 위에 놓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안민석 위원 해명을 한번 들어 보세요.

○위원장 김재윤 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보고서 책임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나오셨나요?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건설추진단장 한경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여기다가 자료를 깔고 여기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늘 깔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재윤 우리가 지난번 특위 회의를 할 때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오늘에야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앞서 여야 간사, 위원장님 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무성의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아무리 부수 상임위고 국민적 관심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대회를 치르고 나라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는 특위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죄다 그냥 들러리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엄중 경고를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정을 다시 한 번 짧게라도 잡아서 다 나오는 시간에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물론 주최 측에서 더 걱정을 하겠지만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놓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강원도는 파산합니다, 동계올림픽 끝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두면 그만 아닙니까, 위원장님이야? 결국은 도민에게 피해가 가고 나라에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윤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과 김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 협의해 주시고요.

○안민석 위원 여당 위원들은 동조를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염동열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김재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할게요.

○위원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가급적 짧게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선 위원님 질의도 못 하셨기 때문에.

○염동열 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강원도에서 하셨지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예.

○염동열 위원 제가 훑어보니까 사례 분석 그리고 동향 분석 이게 지금 80%예요, 90%. 사후 방안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들어오신 특위 때 이것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리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도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그래서 보다 많은 아이디어, 보다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올림픽을 국가 성장동력의 기회, 그리고 돈을 13조까지 투자하면서 올림픽을 제대로 해서 정말 강원도가 새로운 지역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한번 보세요,. 분석. 이것 용

역 준 겁니까? 용역 주셨어요? 제가 만든 것 5월 30일 날 비전 발표한 것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것을 지금 내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 문화 또 배후도시, 이것은 손님만 많이 오면 사후 경기장은 다 관리돼요. 어떻게 손님들을 철도를 통해서 유인할 것인가, 외국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우리 국내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래서 사람만 많아지면 경기장 다 됩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수영장 만들고 워터파크 만들어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게 유인책 될 수 있어요? 워터파크 서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강원도의 향토적 가치 그리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명소 이것을 엮어서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1억짜리 용역입니까?

위원장님, 다시 하시지요. 특위 다시 하시고요. 이것 다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방에 다 놓고, 다시 안 만들면 저도 일시에 모두 예산 보류할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알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의논해서 별도의 회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동계특위 모두에 많은 국제경기 책임자 분들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만 나오면 국정감사 이상으로 혼이 나는구나,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그런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다 이게 지혜를 모아 가지고 동계올림픽 및 모든 국제경기대회를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업무 구분이, 특히 경기장 시설을 건립하고 관리하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 이것은 주로 조직위원회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강원도가 하고 있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대회 직접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합니다, IOC와 함께. 그리고 경기장 시설, 교통망 시설 등 시설에 관해서는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서 주관이 되어서 정부 지원과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고 사후관리 문제는 아마 강원도와 개최시·군이 나중에 별도로 논의해서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가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지역 발전과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계획과 관련된 것은 강원도나 개최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시지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건설추진단장입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사후 활용방안' 이 두꺼운 걸 봤는데 여기에 '아이스하키경기장Ⅰ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원주로 이전한다' 이 말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원주시민들, 그렇지 않아도 대승적인 입장에서 모든 올림픽 경기가 평창·강릉 일원으로 이렇게 콤팩트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 흔쾌히 동의를 하고 또 작년에는 큰 홍역도 치렀습니다마는 끝난 이후에 아이스하키경기장Ⅰ을 원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이 부분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스하키경기장Ⅰ을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고 이전에 아주 편리하게끔, 그리고 그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전은 반드시 할 것인지……

얼마 전에 원주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원주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 이전 비용이 약 630억 들어가니까 그 이전 비용 630억 원만 원주로 달라, 주기로 했다 이것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전을 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원주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여기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여기에 나와 있는 사후관리는 4개 경기장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당시에 중봉하고 슬라이딩센터하고 스피드스케이팅하고 피겨·쇼트트랙 4개 경기장에 대한 사후관리만 나왔고요. 당시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을 원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후관리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용역을 또 줄 겁니까? 아이스하키경기장 관련되었거나 기타 4개 외에는 다시 용역을 또 줄 겁니까?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그래서 향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사후관리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좀 납득하기는 힘들어요. 아이스하키경기장 사후관리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데 그것이 아예 사후관리 대상에조차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로 이전하지 않고 이전 비용을 원주에 줄 수가 있는지…… 있습니까?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재 비드(bid)상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기선 위원 이 부분도 국가 예산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예.

○김기선 위원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가능한지, 국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강원도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건설추진단장 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예, 안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이 강원도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고 아마 실무책임자 건설 관련한 역할을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의 답변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경기장 사후 방안이라는 것이 경기장을 지을 때부터 사후 활용방안까지 고려해서 디자인되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분 말씀은 '사후 활용방안은 나중에 생각을 해 보겠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책임 있는 분이, 저것은 정말 ABC고 기본의 기본인데 어떻게 저런 분의 위치에서 저런 말씀이 나오는지……

저는 정말, 물론 강원도가 당으로 치면 제가 속한 당의 도지사가 계시지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분들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설 건설 이래 가지고는 사후 활용방안 답 자체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의 저런 말씀을 저는 더 이상 도저히 들을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뜻에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제가 안민석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김현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시설 사후 활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의사진행 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염동열 위원님 많은 시간 드렸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후방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 장관님. 서울에는 어떤 건물이 있어도, 어떤 큰 건물이 있어도 다 됩니다. 왜? 그곳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강릉 땅에다가, 대관령 경기장 주변에다가 워터파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도 사람 자체가 유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후방안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경기장 사후처리 관리운영방안이 거기에 문제

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유도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근 방식을 정말 큰 것을 놓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광범위하게, 경기장만 사후방안을 마련하지 마시고 경기장 속에 머리를 집어넣되 도시디자인, 관광마케팅 이런 전문가들하고 함께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장관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토목 한 사람이 어떻게 관광마케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도시디자인이라든가 관광마케팅이라든가 이것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융합 시스템.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염동열 위원 장관님이 딱 주도권을 잡으시고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위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갖추세요, 이제 4년 남았으니까요.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염동열 위원님의 지역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전도 제시하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김영수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께서는 오늘 못 오셔서 권경상 총장께 잠깐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제경기 방송중계 계약 때문에 나가신 건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오늘 아시아방송연맹, 아시아 최대 방송기구인……

○윤관석 위원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계약이었어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전부터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일찍 통보를 했습니까, 그래서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에 대해서 여기 특위에다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예, 통보를 드렸습니다.

○윤관석 위원 아시안게임이 300일 정도 남았지요, 지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308일 남았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또 교문위 차원에서 국감 중에도 현장시찰을 의원들이 한 20여 명 갈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또 국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에 꼭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죽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못 나오셨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나오실 수 있도록 꼭 이야기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총장께서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권경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유진룡 장관님께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이제 아까 말씀대로 308일 남았는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외지원 예산과 시설지원 예산의 지금 신청액과 실제 기재부 반영액을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국회 증액 요구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긴 하겠습니다마는 기재부 반영액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이것 문화부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회 차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우려가 많은 만큼, 또 대회 날짜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장관님께서도 문화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다음에 안행부 차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특위 하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국제경기대회 지원금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익배분율 조정 문제 그때 얘기드렸었지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맞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때 답변을 제가 기억하고 찾아보니까 '충분히 반영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지금 시행령 예고가 되어 있는데 50%~53% 이것은 적극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수치인데 국제경기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조정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서?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국제행사에 60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40 하는 것으로 6 대 4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지만 실제 국제경기대회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이 지금 입법예고한 게 53%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 부처가 문체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국토부 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는 60%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60% 내에서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비율이 50%~53% 정도 되고요, 국방부가 아까 문경대회도 있기 때문에……

○윤관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특위 때 질의할 때는 한 70% 정도 선으로 해서…… 여수엑스포는 끝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제경기대회가 2012년 끝나고 나서는 5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70% 선에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이 수익금이 국제대회에만 쓰는 게 아니라 광고물 정비사업에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상에서는 광고물 정비하고 국제대회 지원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대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도 좀 늘리고 또 금액도 6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문화부장관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배분율 조정에 대해서 문화부 입장들이 있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는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여수엑스포라든가 또 자연총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분되던 비율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문화부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2차관님께서도 정말 여러 가지 또 안행부 내부의…… 그런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전의 기존 비율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 비율이 낮춰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고 다시 또 문화부 쪽하고 이 배분 비율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하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현재 문체부 입장에서는 100% 다 가져가면, 그걸 원하시겠지만 또 광고물법에 이 사업의 기본 목적도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옥외광고물 수익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그러면?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크게 두 가지로 광고물 정비하고 국제행사 지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관석 위원 그런데 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과대하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국제경기대회는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당초에 50 대 50 정도로 가려고 했는데 국제행사 쪽에 10%를 더 얹어서 40 대 6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국제행사에 필요하다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시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대회가 지금 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기 때문에 각 지역 조직위별로 배분되는 비율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원래 취지와 목적에도 국제경기대회 지원이 명확하게 있는 만큼, 물론 옥외광고물 정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국제대회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안행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

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도지사가 국회를 왔습니다. 와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 논의하는데 역시 제일 첫 번째 과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인프라와 또 급수체계 구축 예산과 관련되어서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행부 2차관님!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황영철 위원 동계조직위에서 앞으로 준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의 조직 개편과 관련된 요청이 있었지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있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그래서 옆에 계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강원도도 이야기 했었어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분석을 하고 어느 시기에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필요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전반적으로 인력 증원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꼭 꼬집고 싶은 것은 지금 안행부 기준에 맞춰서 승진연한 또 여타 다른 사람과의 보편성의 문제 이런 얘기 등등 들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지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황영철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저는 지방조직 문제에서는 그건 강원도에서 운영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우리 위원회 조직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해서……

○황영철 위원 단기간에 처리해 주세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전달하시는 게 아니고 안행부 2차관님이 하시면 돼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그건 중앙조직이라서 1차관 소관이라서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하여튼 올해 안으로 결론 내세요. 결론 내셔 가지고, 지금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수년간을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단지 중앙부처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 그 기준도 뭐 별다르게 편파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 달라 이렇게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황영철 위원 저는 강원도민들 모두가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마음으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어떤 공세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사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도지사로 선출되면서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강원도 내에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이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데 뭐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상황을 보니까 계속, 김진선 조직위원장이 처음서부터 유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성공시켰고 도민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당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강원도는 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니까 이 몫은 최문순 지사 몫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이제는 좀 더 초당적으로 그리고 통 크게 그런 목소리들을 함께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지사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가 곧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어려움들을 다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모아 가자……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제는 세계적으로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걸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꼭 그렇게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김진선 조직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여러 가지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한데 합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사를 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을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질의는 다음 특위 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님, 가셔서 10분 후에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오신 것은 대단한 유감이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에리사 위원 특별히 안민석 위원께서도 강원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같은 당이신데도 불구하고 퇴장할 정도로 강원도의 업무와 지금 이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1억짜리 용역이 너무나 엉망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너무 놀랐고요. 꼭 강원도는 따로 한 번 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위가 해야 되는 역할과 강원도가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조직위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설, 알펜시아 이 모든 문제는 강원도가 개발공사와 더불어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자꾸 혼동되어져서 얘기되는 걸 보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곧 조정이 돼서, 이제는 다음부터 이 특위에서는 경기력과 관계되는, 정말 대회 개최에 관련된 부분은 조직위가 한다든지 나머지 알펜시아 문제 기타 등등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가 맡아서 해야 된다든지를 조정해서 여기에서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나오시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간사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국제경기대회 성공을 위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국제경기대회 성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기해 주신 여러 문제들이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또 국제경기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져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이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및 관계자 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총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백재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룡 장관님을 비롯한 차관님, 특히 이경옥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성동	권은희	김기선	김재윤
김현	백재현	안민석	염동열
윤관석	윤호중	이에리사	이재영
이한성	최동익	현영희	황영철

○청가 위원(1인)

박혜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박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제2차관	김종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건설추진단장	한경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권경상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김성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상기
사무총장	박성우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